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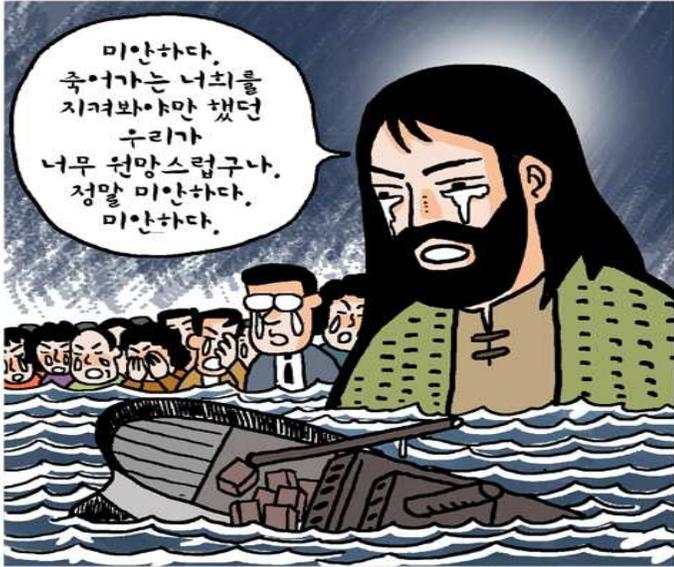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사도 6, 1-7

[화답송] 시편 33(32), 1-2, 4-5, 18-19(◎22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또는 ◎ 알렐루야.)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제 2독서] 1베드 2, 4-9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음] 요한 14, 1-12

성가	8시 미사	입당 34	봉헌 216 221	성체 173 171	파견 243
	11시 미사	입당 34	봉헌 216 221	성체 173 171	파견 243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5주일(5월 18일)		부활 제6주일(5월 25일)		주님승천대축일(6월 1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전베로니카(진영)	이바로로(명국)	김말가리다(미숙)	임투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이바로로(명국)	최다니엘(대연)	강요한(신호)	정요한(석준)	최베네딕토(환준)	이레이몬드(창용)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문골롬바(지영)	김안젤라(영선)	김엘플레다(수연)	최베네딕다(수영)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까미노에서 만난 예수님

작년 9월에 안식년을 맞아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야고보 사도가 걸으셨다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녀왔다. 우리 일행은 순례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출발하였지만, 나름 설렘과 기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순례에 나섰다.

일정상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하는 전 구간을 걸지는 못했지만, 순례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우선, 8-9kg의 작은 배낭을 메고 갔는데, 온종일 걸어야 했던 나는 이 작은 배낭의 무게에도 버거워해야 했다.

잠자리는 ‘알베르게’ 라고 하는 공용숙소를 사용하였는데,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의 코 고는 소리, 땀 냄새, 낯선 화장실 등으로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

무엇보다도 지독한 벌레에 물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는 마음먹고 떠난 순례길을 후회하기도 했다. 또한,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성 소나기에 나는 가랑이가 쏘리고 발에 물집이 잡히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이런 고통은 낯선 곳에서 우리를 더욱 철저한 이방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낯선 이국땅에서 지도도 없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다행스럽게도 까미노에서 만난 미국 교포 자매가 우리와 동행해 주었다.

길을 헤매던 우리에게 이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복음의 예수님과도 같았다. 점차 노란 화살표에 익숙해진 우리는 노란 화살표만 찾으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 노란 화살표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 노란 화살표를 믿고 따라가면서 두려움도, 힘들었던 것도, 무거운 배낭도, 잠자고 먹는 것도, 말이 안 통해 고생했던 모든 것이 점차 기쁨과 평화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란 화살표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야고보 사도가 걸으셨던 그 길이었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산티아고로 안내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이 화살표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온통 두려움과 걱정뿐이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나서는 평화와 행복 가득한 마음으로 걷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 일행은 노란 화살표에 의지하며 야고보 사도가 묻혀 계신 산티아고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보니 예수님의 길 안에 생명과 진리가 담

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 진리와 생명,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만족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예수님의 길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산티아고 순례길! 이 까미노에서 만난 예수님은 내 가슴에 아직도 노란 화살표로 남아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김태현 요셉 신부
인천교구 신도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오늘 제자들은 마음이 산란합니다. 유다의 배신 예고(요한 13,21-30)와 함께 예수님의 이별 예고(요한 13,31-35),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否認) 예고 (요한 13,36-38) 등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산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복음의 첫 말씀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음 편할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일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중 제일 큰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조폭, 못된 상사, 미운 사람 등)이나 어떤 대상(귀신?, 돈, 입시 등)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거나, 도망치거나, 잊어버린다면 그것에서 잠시라도 헤어 나올 수 있지만,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스스로를 괴롭히는데, 약한 의지, 나이 들면서 갖는 무기력, 죽음에 대한 공포, 매번 실패했던 유혹에 대한 약함 등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항상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기에 언제나 내 앞에 있으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잘 안될 것 같은 징조(?)들이 정말 나를 힘겹게 할까요? 하나님의 푸근함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 앞에 마음이 산란해질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요한 14,4 참조)을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요한 14,11 참조) 그 산란함에서의 탈출 통로임을 잘 알려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 지금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잠시 자리를 뜬 엄마에 대한 부재(不在)의 체험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지만, 엄마는 아기를 잠시 내려놓고 아기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내 삶의 공허함에 힘겹습니까? 터져 나오는 울음 속에 자신이 묻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요한 14,1)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판단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엄마의 일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처럼 말입니

다. 엄마가 나를 위해 일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젠 우리의 믿음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음과 두려움, 산란함을 멈추고, 하느님을 조금 더 기다릴 줄 알면서 그 분이 나를 위해 함께하심을 더 굳게 믿을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강귀석 신부
서울 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글_요한 15 / 그림_김윤경

말씀의 향기

복수입니까? 용서입니까?

“그런 높은 시청 앞 광장에 매달아 놓고 찢어 죽여야 합니다. 나라가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교도소에 찾아가서라도 꼭 복수할 겁니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다 아침 일찍 회사를 향해 문을 나섭니다. 길가에 성당이 보입니다.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하루하루 분노 속에서 몸과 마음이 고통 받는 분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수형자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연쇄 살인범 유명철에게 사랑하는 형을 잃은 동생이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네 형제간 우애는 돈독했고 함께 모이면 두려울게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큰 형이 비참하게 살해당한 뒤, 우울증을 앓던 둘째 형이 자살했습니다.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막냇동생마저 먼저 떠난 두 형을 따라갔습니다. 네 형제 중 유일하게 남은 그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이겨내고 삶을 이어갈 에너지가 그에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복수의 마음뿐입니다. 복수는 그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조옥희 아우구스티노
SBS PD, 다큐멘터리 <용서> 연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카메라로 기록하는 것은 큰 고역입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제 마음의 평화도 흔들어 댁니다.

왜 인간 세상에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탐욕, 나태, 식탐, 색욕, 교만, 시기, 분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간 세상에는 비극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박해, 엽기적인 살인 사건, 심각한 자연 파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리고 하느님은 존재하시는가? 계시다면 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가?’ 의문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이 모든 비극을 감싸 안아줍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자유의지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가톨릭전례 여덟째 계명-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탈출 #20:15)

1) 진리 안에서 살아라

함께 공부한 친구가 나중에 누구는 친일파가 되어 부귀를 누리고, 누구는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독립운동을 지속해 갑니다. 함께 교리공부를 하고도 누구는 배교자가 되고, 누구는 순교자가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몸, 자기 가족 귀중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인생의 목적, 인생의 진리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현실적 피해가 오더라도 진리를 선택합니다.

반면에 “인생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인생에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상대주의”, “회의주의” 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삽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라는 주장이고, 따라서 “누구나 마땅히 따라가야 할 절대적 원칙, 절대적 진리란 없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대충대충 맞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8계명은 하느님이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권고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려면, 그에 앞서 우리가 진리의 존재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진리를 증언하여라

일반적으로 8계명을 “거짓말 하지 말라”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이해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8계명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증언하라” 는 요청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증거는 행실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들에만 몰두해서 삽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와 자선을 베풀으로써, 세상적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 즉 하느님이 계심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 (에페 #4:24)이 되었으므로,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1베드 #2:1) 버려야 합니다.

-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려면 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모든 말을 삼가야 한다. 여기서 빛어지는 죄상은 아래와 같다.

이웃의 도덕적인 결점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은연중에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솔한 판단의 죄를 짓는다.

타인의 결점이나 과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알리는 사람은 비방의 죄를 짓는다.

허위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해치고, 그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의 계기가 되는 사람은 중상의 죄를 짓는다(가톨릭교회교리서 #2477항).-

우리가 거짓을 피하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식별력이 요구됩니다. 나쁜 친구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그 말을 전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고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신문 방송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는 신문 방송도 거짓을 전할 때가 흔치 않습니다.

정부나 광고주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문 방송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진리에 근접해 있는지 가려내는 비판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왜곡이 심한 신문 방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항의를 표현해야 합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5월 18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마르코(재상)3주기	사도들의 모후
	연 이마르코(재상)3주기	친구들
	연 이마르코(재상)3주기	김유릿다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원젬마
	연 이스테파노(상준)	이마리크레센시아
	연 서엘리사벳(미자)	이아네스(영숙)
	연 이안나(형순)	이아네스(영숙)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생 첫영성체 학생들	주일학교
	생 첫영성체 학생들	전교부
	생 세만다 페리	김엘리사벳
	생 이카타리나(상은)	이마리크레센시아
	생 양마리아(석순)생일	익명
	생 신마태오(현규)	7-2구역원
	생 서데레사	민제노베파
	생 최야고보(진우)	최베네딕타(수영)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6	203	41	330
헌금	\$608	\$1,173	\$50	\$1,831

< 교무금 > \$4,530

조상희(5) 권영현(5-6) 변귀태(4-5) 유춘성(4)
 유경돈(4) 서춘애(5) 조관식(5) 김승희(5-6)
 정진희(5) 박영실(5-6) 조덕행(3-4) 최윤기(5)
 지영남(5-6) 임희숙(3-4) 최몽렬(4-5) 이순열(5-6)
 김영자(3) 이선희(5)

< 성소후원금 > \$220

서춘애(5) 김승희(1-4) 정진희(5) 박영실(5-6)
 최윤기(5) 이선희(5)

< Bishop's Appeal > \$300

변귀태(4-5) 서춘애(9-10) 김승희(1-4) 최윤기(5)
 박영실(5-6)

< 감사헌금 >

대건회 \$400 김관용 \$100 전문자 \$200
 조동진 \$100

~~~~ 오늘 간식은 심재구 아브라함/사라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2차 헌금 안내

5월 18일(오늘) : Catholic Charities

◆ 첫영성체 : 5월 18일(오늘) 교중미사 중

김우섭 안드레아, 김이든 안드레아, 박진우 레오  
이진표 스텔라, 임보영 요한

◆ 본당신부님께서 북미주 사제 연수에 참가하시는  
관계로 5월 20일(화)부터 5월 28일(수)까지 평일미사  
없습니다.

\* 5월 25일 주일은 몬트레이 한인성당의 채홍락 시몬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 야외미사 안내

6월 1일 교중미사 Joaquin Miller Park

\* 8시 미사 있습니다.

◆ 예비자 교리 신청

입교식 : 7월 6일 교중미사 중

예비자 분들이나 예비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프란치스코회 : 5월 18일(오늘) 교중미사후 107호실
- \* 구역장회의 : 5월 25일(다음주) 교중미사후 107호실

◆ 대건산악회 5월 정기 산행 안내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집합시간/장소 : 오전 9시 반까지 성당 주차장  
직접 오시는 분 : 10시까지 Redwood Regional Park  
준비물 : 점심 및 물, 산행 필수품은 각자 지참  
문의 : 회장 평현팔 하비에르 510-847-3014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5월 22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5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5-6장

|        |              |                     |
|--------|--------------|---------------------|
| 1 구역   | 5월18일(일) 6시  | 이인학 시몬 덕            |
| 2 구역   | 5월18일(일) 6시  | 임장만 베드로 덕           |
| 4 구역   | 5월24일(토)6시반  | 최환준 베네딕토 덕          |
| 7-1 구역 | 5월24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8-2 구역 | 5월31일(토) 12시 | UC Village 큰놀이터     |
| 10 구역  | 6월 1일(일)미사후  | Joaquin Miller Park |

◆ 청소년 기금마련 골프대회 결산

참가자 : 51명                      도네이션 : 가정/단체 36

총수입 : \$12,071

총지출 : \$ 5,053.09      수익금 : \$7,017.91

◆ 서중부 남성 영어 꾸르실료 제11차 수강자 모집

기간 : 6월 26일(목) ~ 29일(일)

장소 : Holy Redeemer Retreat Center

접수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 상반기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교우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하반기에 간식을 제공해 주실 분들은  
성모회장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오늘부터 방학(오늘 합동미사)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4-2015)

- 5월 말까지 : \$270                      - 6월 말까지 : \$285  
- 그 이후 : \$300                      \* 개강일 : 9월 6일